

무안공항, 광주·전남 ‘좌우 날개’로 날아야

서남권 거점공항 위상 불ان
민간공항·군공항 갈등 넘어
지역발전 공동 전략 수립
광주·전남 공동보조 맞춰야

광주·전남이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기반시설 보완 및 주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 투자, 공항 주변 지역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해 공동보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는 군공항, 전남은 민간공항 이전에만 몰두하면서 자칫 지자체 간 공항 무한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전북 새만금공항이 포함되고, 동남권 신공항까지 재부상하면서 여전히 왜소한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호남권의 국내·국제선 수요와 함께 경쟁력 있는 중국·동남아·일본 노선을 개척하는 한편 미흡한 시설 보완, 연계 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서둘러 그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역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된 ‘광주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첫 협의회를 갖고 국방부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대정부 이전 촉구 활동과 시·도민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전인 지난 20일 전남도는 박병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무안군, 관계기관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TF 위원회를 열어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공항 통합, 대중교통 체계개편, 기반 편의시설 확충, 공항 주변 개발 등이 주제가 됐다. 이는 최근 지역공항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광주와 전남의 미묘한 입장차를 단적으로



손도장 태극기 ‘만세삼창’ 3·1절 100주년을 나흘 앞둔 25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대형 손도장 태극기 퍼포먼스’ 행사에서 북구청 공무원들과 어린이집 원생, 주민들이 손도장을 찍어 만든 태극기 앞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가로 9m 세로 6m 로 제작된 태극기는 광복회에 기증할 계획이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보여주는 사례다.

민선 7기 들어 이용섭 광주시장이 2021년 광주민간공항을 이전하기로 시기를 못박으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군공항 이전, 무안공항의 성장 등의 로드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무안군의 이전 반대발목이 붙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복잡한 군공항 문제를 뒤로 하고 무안공항 활성화에만 도전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기존 무안공항 등 국제공항 8곳, 광주공항 등 국내공항 7곳 등 공항 15곳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공항, 동남권 신공항 등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면

서 지역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무안공항이 광주민간공항의 수요를 이탈없이 흡수하고, 국제선 경쟁력을 높여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나가기로 전에 인근에 공항이 신설돼 경쟁력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6~2020)에서 지적된 무안공항의 문제점은 ▲비슷한 규모의 국제공항에 비해 시설 미비 ▲이용권역(광주)에서의 지나치게 먼 접근 시간(1시간28분) ▲비행훈련 인프라 미흡 및 국제선 취약 ▲계획기간 5년간 시설 투자 전무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으며, 내년에 작성되는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무안공항 관련 정책 및 예산이 반영될 지도 미지수다.

지역 한 대학 교수는 “광주·전남이 각각의 입장에서 서운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는 군공항 문제를 서둘러 끝내고 무안공항을 명실상부한 거점공항으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호 약속한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지키며, 구체적인 방법은 반드시 서로 협의해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노력의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자치경찰제 공모, 전남 참여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범 지역 공모에 전남도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25일 “전남 22개 시·군별로 차관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 본 뒤 시기를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시범운영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이번 정부의 공모에는 전남도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5개 광역단체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과 세종, 제주 등 3곳을 확정하고 나머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을 각 1곳씩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와 경기도, 경상남도도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근 강원도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를 했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 확대 차원에서 복지·치안 서비스 등 중앙 행정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기로 한 공약으로 지방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원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중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면 준용 등이 가능하게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D-1

종전선언 주목

靑 “북·미 합의 가능성
2차 선언으로도 충분”

청와대가 이를 앞으로 다가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의 형식·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체만 놓고 봐도 많게는 4차 남북미중, 3차 남북미, 2차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을 목전에 두고 청와대 공식 입장을 밝히는 대변인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이 담길 경우 북미 정상이 직접 종전을 선언

하는 형식을 취할지, 향후 종전선언을 하기까지의 로드맵에 합의할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어서 북미 2차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한국전 당사자 4개국 중 서로 교차적으로 수교를 맺고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이 이뤄졌고, 남은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 협정과 관련, “평화협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적인 조항을 담아야 하며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에 2차 북미회담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 프로세스를 충분히 밟은 뒤 마지막 단계에서 맺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 평화협정을 논의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부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의 유관순’ 윤형숙 열사 등
여성 독립운동가 재조명해야 ▶6면

김여울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 გადა
살 뻔 김선빈과 살 뻔 임기영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김선빈 임기영

3·1 운동 100주년 제54회 3·1 마라톤
3월 1일(금) 오전 8시30분 아시아문화전당 출발

HNT 하나투어

여행은 무안공항에서 시작하세요!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대 교환권 제공(성인기준)
※ 본 혜택은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예약시 광주일보 구독 고객임을 알려주세요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동남아

다낭

766,000원~
다낭/호이안/후에 4일
현지저녁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매일 운항 3박4일
#4성급호텔 #투톤장투어 #후에전통가

세부

530,000원~
세부5일,6일,솔레아리조트
현지저녁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화,수,금,토 3박5일 (3월30일까지)
수 3박5일 토 4박6일 (4월3일부터)
#해랑+관광 줄기 #필리핀의 보물

세부/보홀

880,000원~
세부/보홀 5일
현지저녁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화,수,금,토 3박5일
#발라카시호텔 #전신마사지

코타케나발루

708,000원~
코타 5일,6일,시내 준특급
현지저녁 가이드+가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목요일 3박 5일
토요일 4박 6일
#아일랜드호텔 #반딧불투어

방콕

671,000원~
방콕/파타야 5일,6일
현지저녁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목요일 3박 5일
토,일요일 4박 6일
#태국 43 #준특급 #다이나믹여행

방콕/후마인

941,000원~
방콕/후마인 5일,6일
현지저녁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목요일 3박 5일
토,일요일 4박 6일
#태국왕실정원지 #문순필의 와인농장

일본/대만

오사카

880,000원~
오사카/교토/나라 4일
현지저녁 가이드+가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화,목,금,토,일요일 3박4일
#알찬관광일정 #다양한 특식 #1일자유

기타큐슈

582,000원~
기타큐슈/유후인/벳부 4일,5일
현지저녁 가이드+가사경비 3,000엔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금,일요일 2박4일 화요일 3박5일
(3월5일~4월28일)
#지카온선 #캐넌시티

대만

702,000원~
대만/지우펀/야류 4일
현지저녁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매일 운항 3박4일
#먹거리,물거리가족

모이타

538,000 원~
모이타/유후인/벳부 3일, 4일
현지저녁 가이드+가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화,목요일 2박 3일
토요일 3박 4일
#은천탈림여행 #신규항

중국

상해

329,000원~
상해/항주/추가경 4일,5일
현지저녁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상해/항주/추가경비 #상해/항주/추가경비

상해/장가계

1,190,000원~
상해/장가계/원가계 4일,5일
현지저녁 가이드+가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천하제일명산 #일출아름다움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일 변경 가능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지] 도착비지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합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특별여행] 특별여행은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 ● 여행 유의 ● 여행 자체 ● 철수 권고 ●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